

## 2022 년 2 월 12 일 “예수님의 비유(28) 어린아이와 천국”(마 18:1-4)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은 순진무구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라는 의미입니다(본문 4 절).

### [1] 신약의 어린아이 비유

<부정적 의미> 바울은 영적 미숙함을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고전 13:11). 어린아이의 한계는 온전한(통합적인) 안목과 이해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의미> 예수님은 하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마 19:13-15).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철저히 양육자와 양육 환경을 신뢰하고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힘을 길러서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해야 자기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지만, 길러낸 힘을 사랑(진리)를 위해 쓰지 않고 대부분 타인을 조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힘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가운데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억압과 조바심에서 자유하며,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 눈으로 보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가 어린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아버지에 대한 참된 의존성과 신뢰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이것에 연결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 [2] 어린이들의 겸손의 상징

18:1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세속적 개념을 가지고 하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누가 예수님 믿고 가장 성공하는지, 누가 가장 뛰어난 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말로 묻기도 합니다. 누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누가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영적 단어를 쓰지만 세속적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반면, 어린이들은 힘과 특권이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끌리는 세상은 힘의 매력을 주장하며 모든 것을 힘으로 환산합니다. 경제, 권세, 무력, 심지어는 학문도 힘으로 환산하여 누가 더 센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힘과 특권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돌봄과 공급과 사랑을 구하고 의지하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불가피하게 성장 과정에서 힘의 매력을 느끼고 추구하게 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깨달아 세속적 힘의 방식과 목적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의 힘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 힘의 욕구를 내려놓는 길은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특권을 추구하며 상향지향적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힘과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오셨으며, 더욱 낮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으니 신앙의 참 길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확신하며 주님을 따라 자신을 낮추는 삶을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진가를 맛보고, 세상의 힘과 특권을 목말라하는 삶을 넘어 진리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특징은 각각 어떤 면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2. 세상에서 힘의 추구는 하나님 나라의 힘의 추구와 어떤 면이 다를까요? 세상에서 힘을 추구한 결과와 하나님 나라에서 참 힘을 추구한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